

송순 교유시의 양상과 정서

백숙아*

<차 례>

1. 서론
2. 사제지간의 정의
3. 동료지간의 신의
4. 결론

<국문초록>

송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송순의 문집인 『면앙집』에는 560여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이 중에서 교유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송순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사제지간의 정을 담은 작품들과 동료지간에 믿음과 우정을 담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제지간에 관련된 작품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당대 최고 절의가이자 문장가로 추앙 받아온 박상, 박우 형제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름을 드높였다는 점이다. 송순은 자신이 학자가 되기까지 두 분의 가르침이 많았다며 늘 두 형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 두 번째는 송순의 삼종 당숙으로 소문난 청백리인 지지당 송흠(1559~1547)과 전북 태인의 최은 송세림(1479~?)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수학을 통하여 풍류시인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송순 한시에 나타난 동료와의 신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송순은 인품이 온유돈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돈독한 정을 유지

* 순천대학교

하며 지냈다는 것을 그의 작품과 함께 살필 수 있었다. 동료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해하며 조화로운 시작 활동을 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송순의 한시 속에 드러난 교유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은 이 밖에도 스님과의 교분과 별시나 만시를 통하여도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송순의 한시, 교유시, 정의와 신의, 은유돈후, 조화로운 창작 활동

1. 서론

송순(1493~1582)의 인물됨은 덕망과 지조, 그리고 충효와 시재를 지닌 관용 지향의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사람들이 배척받았던 사화 등으로 인한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조선 전기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걸쳐 원만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지금까지 송순과 교유했던 인물로는 신광한, 성수침, 나세찬, 이항, 김인후, 임형수, 노진, 박정, 기대승, 고경명, 정철, 임제 등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송순과 교유했던 인물은 110여 명에 달한다.¹⁾ 그와 사귀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덕망과 지조를 지닌 유명한 인사들이었으며 시와 풍류로 맺어진 사이였다.²⁾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송순은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으며, 그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수침의 “이 세상 화려한 선비들이 모두다 공의 문하에 있다”³⁾ 는 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송순의 문집인 『면양집』⁴⁾에는 560여 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이 중에

1) 이종건, 『면양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2, 17쪽.

2)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245쪽.

3) 聽松曰 此所謂天下桃李盡在公門者也, 『면양집』 5권, 부록, 〈년보〉.

4) 본고에서 인용할 문집텍스트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한국문집총간 26번에

서 교유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은 상당한 편수를 차지한다. 그동안 송순 한시 속에 나타난 교유시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체적인 주제를 모아 열개를 짝 형식의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김동옥⁵⁾과 박준규⁶⁾는 송순의 사우관계와 교우관계에 대하여 소개했다. 최한선에 이르러 사제간의 교유시와 동년배간의 교유시로 나누어 작품분석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제의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교유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⁷⁾ 주뢰는 송순 한시의 주제적 특징 연구를 통하여 스님과 교유시를 살폈다.⁸⁾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송순 한시에서 볼 수 있는 교유시의 양상과 정서를 살피고자 한다. 송순의 인간적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교유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제지간 · 동료지간 · 승려지간 · 만시에 드러난 교유양상 등이다. 이 중에서 그가 호남문학의 사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지지기반이 되었던 사제지간의 정의, 평생토록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동료지간의 신의 등 두 가지⁹⁾ 주제에 집중하여

수록되어 있는 『면양집』이며, 앞으로의 인용시에는 권수와 쪽수만 밝히도록 한다.

5) 김동옥, <임난전후 가사연구>, 『진단학보』 25-27집 합병호, 진단학회, 1964.

6) 박준규, <송면양정연구-그의 생평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25호, 국어문학회, 1985.

7)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8) 주뢰, 「송순 한시의 표현적 특징과 주제 연구」, 가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9) 송순은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며 지냈다. 이를 분류하자면 사제지간, 동료지간, 선후배지간, 승려지간의 교유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선후배지간의 교유 양상을 보이는 시는 사제지간과 동료지간의 분류에 포함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승려와의 교유 양상을 보이는 시들에 대한 고찰은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사제지간, 동료지간의 교유 양상을 띤 시들에서는 정의와 신의의 양상이 동시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필 두 주제에 대하여 이분법적으로 설정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송순이 스승인 박상과 송흠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내용을 담은 시들을 살피면서 사제지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서이다. 송순이 살아온 시기는 각종 사회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 이유로 많은 동료들이 유배를 갔거나 산림에 은거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수록 이들은 서로 간에 더욱 돈독한 정을 나누며 살았다. 정치 활동, 문학 활동, 일상 생활 등을 통하여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동료지간의 신의라고 여겨 송순 한시에서 독립된 주제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제지간의 정의

『면앙집』에는 송순과 관계를 가졌던 명류들의 일화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 사제지간에 관련된 작품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당대 최고 절의가이자 문장가로 추앙 받아온 박상, 박우 형제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점이다. 송순은 고향인 담양에 놀재 박상이 부사로 부임해 오자 찾아가 글을 배웠다. 놀재는 성품이 엄격하여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했지만 송순을 지켜보고는 대단한 칭찬을 했다. 그리고 송순에게 문장가로서 남달리 기대를 했다. 놀재의 아우인 박우 역시 송순을 몹시 아꼈다. 송순은 “내가 학자가 되기까지 두 분의 가르침이 많았다”며 늘 두 형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¹⁰⁾

둘째, 송순의 삼종 당숙으로 소문난 청백리인 지지당 송흠(1559~1547)¹¹⁾과 태인의 취은 송세림(1479~?)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수학을 통하여 풍류시인으로서 인정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양팽손과 송순, 그리고 나세찬은 송흠의 학맥을 계승한 제자들로 호남의 학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¹²⁾

10) 時訥齋朴公祥莅潭陽府 潭 公鄉也 乃從學焉 朴公素嚴峻少許可 見公輒大稱賞 期以遠大之業 訥齋弟六峯祐 亦於公有教迪之益 公自言平生爲學 得二公旨者居多云, 『면앙집』 4권, 306쪽.

11) 송흠은 장성 삼계에서 출생하여 대표적 사람으로 성장한 호남의 명류이다. 기묘사화 때 고향에 노모가 계심을 이유로 수차 제수된 벼슬을 사양하고, 강호에 오유하며 스스로 호를 지지당이라 하였다. 송흠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육봉 박우(1476~1547), 학포 양팽손(1488~1545), 면앙정 송순, 석천 임역령(1496~1568), 지족암 오겸(1496~1582), 송재 나세찬(1498~1551), 하서 김인후(1510~1560) 등 이른바 21명사에 속한 여러 인물들이 끼어 있음을 볼 때, 이는 호남 사림계에 차지하는 송흠의 위상을 알게 하는 좋은 예증이 된다.

12)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96쪽.

한편, 송순이 스승으로 섬기던 송세림 역시 문명이 높은 문장가로서 패관문학 소화집 『어면순』을 저술했다. 송세림이 전라도의 능성현에 거처하게 되자 26세였던 송순은 그에게 나아가 글을 배웠다. 이때 송세림의 아우인 송세형과 함께 수학하게 되어 두 사람도 막역지간이 되었다. 송순은 스승을 찾고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태인을 찾아가 송세림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송세형, 김약회, 김약목 등과의 친교를 두터히 하면서 정극인을 존경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에서 정극인과 송세림, 송순에 이어지는 세 인맥과 송세형, 김약회, 김약목 등과의 친교를 고려하면 면양정 문학에 미쳤던 이들의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¹³⁾

송순은 성수침(1493~1564), 이황(1501~1570), 박우(1476~1547)와 더불어 도의지교(道義之交)¹⁴⁾를 맺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인후(1510~1560), 신광한(1484~1555), 이이(1536~1584), 기대승(1527~1572) 등 일대 명류 20여 명이 그 문하를 드나들었다. 성수침은 “이른바 천하 도리 모두가 공의 문하에 있다”¹⁵⁾고 했을 정도였으니 송순의 넓은 인맥을 가늠할 수 있겠다. 성수침의 발언은 호남사림 대부분이 송순과 사제지간이거나 동년배 간의 정을 나누며 살았던 명류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 글은 1579년 그가 벼슬길에 오른 지 61년이 되었을 때 주변 지인들이 열어준 회방연을 언급한 글이다.

1579년에 가인(家人)들이 주선하여 회방연을 베풀었다. 금상께서 소식을 듣고 호조에 명하여 화선온(花宣醞)을 하사하여 축하하기를 벼슬길에 오른 첫 해에 내린 준례와 꼭 같이 총애함을 보이셨다. 이때 정송강, 고제봉, 임백호 및 전라감사와 각 고을 수령들이 모두 면양정 위에 모였는데 밤은 깊어가

13) 박준규, 위의 책, 243~244쪽.

14)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상의 의리, 즉 도의로 맺은 관계를 말함.

15) 時訥齋朴公祥莅潭陽府 潭公鄉也 乃從學焉 朴公素嚴峻少許可 見公輒大稱賞 期以遠大之業 訥齋弟六峯祐 亦於公有教迪之益 公自言平生爲學 得二公旨者居多云, 『면양집』 4권, 252쪽.

고 술기운이 훈훈하니 공께서 장차 침실로 옮겨가야 했다. 송강께서 가로되 “공을 남여(藍輿)에 모실 것이니 굳이 괴롭게 보행하지 마소서! 우리들이 당연히 공동으로 모시리다!”하고 남여를 메고 정자를 내려가니 관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는 일화는 『담양읍지』에 기록되었다.¹⁶⁾

이 글의 중심내용은 회방연이다. 회방연은 과거 합격 6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로 조선시대 통틀어서 몇 차례 되지 않을 정도로 드물다. 송순의 경우 담양지역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이며 지인과 제자들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인금이 꽃과 술을 선물로 내려 보냈다 했으니 그 잔치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¹⁷⁾ 이는 유학자였던 송순의 인륜과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던 상징적 의미이다.

송순이 길러낸 제자로는 김인후, 고경명, 임형수, 기대승, 박순 임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정철은 송순이 유독 많이 아끼던 제자이다. 정철 역시 스승인 송순을 많이 존경하여 따랐다.¹⁸⁾ 이러한 단적인 예를 통하여 송순은 누구나 부러워할 인맥을 갖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주변과 함께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人間空覺鬢毛班	사람의 귀밑머리 희어짐 알았어도
天上難教日月還	하늘도 세월은 돌릴 수가 없다네
縱欲一時開遠目	한 번 멀리 바라보고 싶지만
登臨誰復借前山	누가 앞산을 빌어 다시 올라갈까

浮生天地一高歌	천지간의 덧없는 삶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니
不管長安富貴家	장안의 부귀한 집이 무슨 상관이라

16) 以先朝著老 付知中樞 累賜食物如在廷例 己卯 家人設回榜宴 上聞之 命戶曹賜花宣醢 一如新恩例以寵之 時鄭松江高霽峯奇高峯林白湖 諸公暨道伯邑宰 齊會于俛仰亭上 夜深酒闌 公將就寢室 松江曰 舉公藍輿也 自不惡 吾儕當共之 遂扶荷而下 觀者莫不艷歎 事載邑誌, 『면양집』 4권, 243쪽.

17) 임준성, 「면양정삼십영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12, 471쪽.

18)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101쪽.

獨向世間求直路 홀로 세상 향해 곧은 길 가려했으나
 晚年歸致問如何 늘그막에 여기 돌아와도 괜찮을까

一世雄文自不多 일세의 명문장 많지 않아
 相逢誰許草黃麻¹⁹⁾ 그 누가 황제 칙서 초안 허락할까
 七絃老手空淒斷 익숙한 솜씨 가야금 줄 끊겨 처량하니
 千載猶知憐伯牙 천년 지나서야 백아 가여운 줄 알겠네

茫茫前路昧東南 길 아득하여 동남을 몰랐는데
 函丈²⁰⁾從來樂且湛 선생은 본시부터 즐기고 또 즐겼네
 不有淸風吹我過 맑은 바람 스쳐 지나지 않으면
 一生那得免昏酣 평생 어찌 저물도록 술에 취함 면했을까
 〈奉和訥齋先生韻〉²¹⁾

이 시는 송순의 스승 박상이 말년에 시론(時論)에 배척을 받아 반열에 오르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기며 지은 것이다. 호기를 부릴 때에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으니 귀밑머리가 하얗게 변할 때가 되어서야 인생의 역정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표현으로 시상을 열었다. 사람의 호기는 젊음과 건강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호기란 부귀영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세상엔 좋은 문장가가 많지 않아 황제의 칙서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스승의 실력을 높여 노래한 것이다.

한양으로 나아가 입신양명을 쫓는 노래한 소절 부르고 나니 나이가 딱 게 되었다. 거문고의 대가인 백아는 자신의 연주를 좋아하던 친구가 죽자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백아의 거문고 소리처럼 맑고 고귀한 스승의 높은 인품과 학문을 언젠가 후대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강조하였다.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

19) 황마지(黃麻紙)로, 옛날에 임금의 조서를 베껴 쓸 적에 내사(內事)에는 백마지(白麻紙)를 쓰고 외사(外事)에는 황마지를 썼다. 전하여 임금이 내리는 교서(敎書)를 가리킨다, 『한국고전번역총서』, 「삼탄집」.

20) 스승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21) 『면양집』 1권, 192쪽.

더라면 일생 동안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을 것이라며 스승의 은혜 또한 한껏 기린 시이다. 여기에서 백아와 청풍은 스승 박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이 시를 지으며 송순은 ‘선생이 계유 갑술의 사이에 담양부사로 나오셨는데 내가 정공 만탁과 더불어 스승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평생에 조금이라도 나아갈 방향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스승님이 인도해 주신 덕에 힘입었는데 말년에 시론(時論)의 배척을 받아 높은 반열에 용납되지 못하니 선비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²²⁾는 글을 부제로 붙였다. 놀재의 가르침은 송순의 인격 형성과 학문 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스승에 대한 그의 존경심이 남달랐던 것이다.

抽身危徧解微官	위험에서 몸 빼내려 미관말직 그만두고
斷壁延蘿復躡攀	절벽에 얽힌 넝쿨 다시 밟아 매달렸네
穿石老鼉爭忽忽	돌구멍의 다람쥐는 날쌔게 다투고
隔林雄虎尙桓桓	숲 저편의 호랑이는 용맹스레 싸우네
遠望直屬長雲外	구름 밖 땅에서 멀리 바라보니
寒景偏熹短峽間	좁은 골짜기에 찬 그림자 한쪽만 아름답네
虛谷太弘嫌闕障	크고 넓은 빈자리 막힘이 싫은데
疊峯何事敢衝干	겹겹 봉우리 무슨 일로 감히 막으려는가
春留舊谷忻松檜	봄날 옛 골짜기에 소나무 반기는데
秋晚東坡惜蒨蘭	늦가을 동쪽 언덕엔 채란이 가엾구나
遊覽欲摠幽思盡	그윽한 생각 다하고자 노닐고자 하니
孤筇終夕最崇巒	지팡이 짚고 밤새워 높이 올랐네

〈奉和訥齋先生贈僧韻〉²³⁾

이 시에서는 늘 긴장된 정치생활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위태한 정치상황에서 해방되어 고향의 언덕에 이르니 자연에이 반겨주고 평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쁨에

22) 『면양집』 1권, 46쪽, 先生 在癸酉甲戌間 出爲潭陽府使 余與鄭公萬鐸師之 平生稍知向方 專賴導引及其 晚年爲時論所斥 不容顯列 爲士者咸惜之.

23) 『면양집』 1권, 183쪽.

설렌다. 다툼을 나타내는 ‘忽忽’과 용맹스러움을 표현한 ‘尙桓桓’²⁴⁾이란 의태어를 실감나게 구사했다. 돌구멍으로 서로 빨리 들락거리려 다투는 다람쥐와 잘 난채 용기를 뽐낸다는 호랑이의 설정을 대조적으로 묘사해 감각적인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다람쥐는 간신배들을 지칭하며 호랑이는 사람의 영수인 박상을 추앙하여 의인화한 것이다.

박상은 중앙에서 까마득히 먼 고향으로 내려와 아직도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다. 허기란 곧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간신배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스승 박상과 사림들의 입장을 배고픔으로 표현하고 있다. 봄과 소나무(松檜), 가을과 난초(菫蘭)를 대비시켜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애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밤이 새도록 산길을 걸으며 갈등하는 스승의 외로운 모습이 보인다.

이때 박상은 이때에 아버지의 연세가 매우 높아 봉양하기를 바라므로 임금의 명이 내려 낙향하게 되었다. 이때 안순지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술을 들고 찾아와 이별을 안타까워했다.²⁵⁾ 송순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이다.

野曠知天遠	들이 넓으니 하늘이 먼 것을 알겠고
林疏會氣寒	숲이 성그니 기후가 차가움을 알겠네
保靑憐檜柏	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이 사랑스럽고
椈折惜芝蘭	지초와 난초의 꺾어짐이 가엾구나
自酌杯雖滿	홀로 술잔을 가득 채워 마셔보지만
仍愁意不寬	쌍인 시름없어지지 않구나
一秋於四序	사계절 중의 하나인 가을이건만
胡獨奪人歡	그대 어찌 인간의 기쁨을 빼앗는가

24) 『서경』, 周書, 〈時甲子昧爽〉尙桓桓如虎如貔 如熊如羆于商郊 弗迓克奔.

25) 박상, 『눌재집』, 「년보」 정축 12년, 1004쪽, 春 除順天府使 先生 以親年篤老(母夫人年八十)乞養 有是命.

放闊秋山路	가을 산길 넓다란데
披懷任四馳	활짝 사방으로 달려보네
谷虛傳籟遠	빈 골짜기 바람소리 전하고
天曠送雲遲	맑은 하늘엔 구름 더디 간다
明月堪留影	밝은 달그림자 멈추고
西方轉起思	다시금 서쪽 생각이 난다
商飈如借翼	가을바람에 만일 날개를 빌릴 수 있다면
跨鶴問黃羲	학을 타고 가서 황희 ²⁶⁾ 를 묻고 싶어라

〈登無等山口號錄呈石軒先生〉²⁷⁾

이 시는 박상의 친구인 유옥(柳沃, 1487~1519)에게 지어준 시이다. 이 시를 지을 즈음엔 기묘사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이다. 송순은 사화가 일어난 이듬해 무등산에 올라 기록한 시를 유옥에게 준 것이다. 유옥은 박상, 김정과 함께 신씨 복위소를 올렸던 인물이다. 계절은 가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으나 지초와 난초에 사람들을 비유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던 옛 일을 애달프게 비유하고 있다.

당시 연달아 일어난 사화로 말미암아 주변의 지인들이 참화를 당하고 쓰디쓴 고초를 당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찾으려고 해도 제도적으로나 사회 여건상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심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리를 바로 세우려 노력한다는 자신의 심정은 중국의 고대 전설상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었던 현원씨와 복희씨 같은 성군을 만나고 싶어 한다.

황희(黃羲)는 중국의 전설상으로 전해져오는 성군들로 중국인들에게 엄황의 후손이라 일컬어질 정도이다. 사람들 모두 시류에 부대끼고 있는 실정이지만 밝은 세상을 기다림이요, 전설상의 황희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

26) 황희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이며 삼황의 인물로 황제 현원씨와 복희씨를 이르는 말이다. 현원씨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이며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맨 처음 곡물 재배를 가르치고 문자·음악·도량형 따위를 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복희씨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이며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27) 『면양집』 1권, 183쪽.

를 만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스승의 친구에게 시를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으며 복잡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듯 침잠된 분위기를 보임으로써 인생의 맛과 자연의 섭리를 오묘하게 일치시켜 시적 경지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祖先積德久不微	조상님 쌓은 덕이 오래도록 쇠하지 않아
新平 ²⁸)緒業傳何遙	신평의 업이 아마 저리 오래 전하는가 보다
大人淸直超汚世	대인은 청직하여 어지러운 세상 진압하고
風聲高邁凌青霄	바람소리는 푸른 하늘 위로 솟아오른다
勤理三年領吾府	삼년 동안 우리 고을 애써 다스리시어
民俗但知歌舜堯	사람들의 풍속이 다만 요순을 노래하네
聯派小子仰餘化	대를 이어 자손들이 우러러 교화를 받도록
不見一塵留淸瑤	맑은 구슬처럼 티끌 한 점 묻지 않으신 분
雖將未命繼後光	내가 비록 말직으로 후광을 잇는다지만
無異燕雀鳴啁噍	제비 참새의 지저귐과 다름이 없도다
敦親厚意只獨知	친족의 돈목한 후의 혼자만 아노니
不受外謗紛喧囂	외인의 시끄러운 비방은 듣지도 않는다
吾門終始仰高山	우리 문중에서 끝까지 높은 산으로 우러르니
咸願壽福延且遼	모두가 수와 복이 오래하길 원하도다
況君才兼文武美	하물며 그대의 재주도 문무를 겸하여
萬斛智慮登明朝	만 섬의 지려 안고 밝은 조정에 올랐도다
將相無種可相勉	장군과 재상이 종자가 없다고 서로 권면하며
歸心共指雲外鷗	돌아갈 마음 함께 구름 밖에 솔개를 바라본다

〈次宋奉事贈別詩〉 29)

위의 시는 송순의 삼중당숙이며 그의 유년시절에 스승이었던 지지당 송흙의 증별시를 차운하여 지은이다. 송흙의 인간됨과 그가 지니고 있는 사상을 존경하여 오래도록 문중에 이어지기를 바라며 더욱 근학할 것을

28) 신평은 지명으로 송순의 고향이다. 옛날 백제 때는 사평으로 불리었으며 후에 홍주목에 예속되었다.

29) 『면양집』 1권, 196쪽.

다짐하는 내용을 읊고 있다. 대인으로 칭하여 스승의 훌륭한 자질을 칭송하면서 송순 자신은 소인으로 칭하여 제비나 참새에 불과한 인간으로 형상화했다. 송흙은 집안의 큰 산이며 그 수와 복을 오래도록 누리어 집안을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후손도 역시 나라의 번영을 위해 힘써야할 것을 읊었다.

이때에 송흙의 부친이 부를 다스리며 같은 집안이란 이유로 친목과 사랑이 아주 깊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시가 창작되었다. 송흙은 선군으로 동고조이다. 문운이 오랫동안 쇠약하다가 송흙이 여서를 계승하여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순도 다행히 급제를 하여 높은 반열을 출입하자 선조가 도우신 것이라 하여 송순을 늘 사랑하고 아껴주며 친자식과 다름없이 하였다. 송흙은 젊어서부터 노년까지 청백으로 몸을 가져 일시에 모두 존경하였다.³⁰⁾

송흙은 호남 지방의 모범적인 목민관이 되어 이름 있는 청백리로 칭송된 인물이다. 노년에는 향리에서 관수정을 건축하여 경영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당대의 유명한 석학들과 시로써 교류를 통하여 호남시단의 성황을 이루었다. 『지지당유고』에는 20여 명의 차운시가 전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15~6세 이상 연하로서 송흙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로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는 박우·양팽손·송순·임억령·오겸·나세찬·김인후 등이 이른바 21명사³¹⁾에 속한 인물들을 볼 때, 호남 사림계에서 차지하는 송흙의 위상을 예견할 수 있다.

송흙은 중종 36년(1541)에 송흙은 좌참찬에 특별히 제수되자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려 왕의 윤허를

30) 『면양집』 1권, 196쪽, 次宋奉事益憬 知止堂次子 官牧使 贈別詩 是時奉事尊大人 令監知府治 以同宗睦愛最深故語全及之(중략) 宋同知公欽 與先君同高祖 門祚久替 同知得繼餘緒 歷敷清要 余亦幸登科第 出入顯列 謂是先祖默佑 常加愛重 無異親子 第 同知自少至老 清白自持 一時咸尊尚之.

31) 21명사는 박상, 박우, 최산두, 양팽손, 송순, 유성춘, 윤구, 오겸, 나세찬, 이항, 김인후, 유희춘, 임형수, 양팽손, 박순, 기대승, 고경명, 백광훈, 최경창, 임제 등으로 당시 호남문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이른다.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90쪽.

받았다. 4월에 호남으로 돌아가니 온 조정대신들이 동대문 밖의 한강 상류까지 따라와 전송하였다고 한다.³²⁾ 목민관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고을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여 부세를 줄이고 형벌을 삼가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청렴하고 부지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³³⁾고 한다.

當年奉養試爲州	그해에 부모님 모시려고 광주목사 오셨으니
不是餘生謝故丘	남은 인생 고향을 떠남이 아니었다네
慣向幽居曾着趣	조용한 곳 찾음은 오래 전의 취미였지만
暫從人世強低頭	세상사에 잠시 억지로 머리를 숙였다네
承家已喜名聲遠	기꺼운 집안일에 명성은 멀리 알려졌고
享壽堪誇氣力適	오래도록 살면서 강건한 기력을 과시하네
小子追車相別意	수레를 따라온 제자들과 서로 이별한 뜻은
一身珍重保金甌	소중한 그 한 몸을 황금같이 보호하심일세

〈奉別宗丈令公赴光州〉³⁴⁾

이 시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고향을 찾아 부임해가는 스승 송흙과 송별하며 지은 것이다. 건강을 걱정하고 인간 세상에 머리를 숙인 것은 옳은 판단이라는 뜻이라는 말로 시상을 열었다. 늘 울곧은 삶을 살고자 했던 송흙은 티끌 묻은 세상에 뒹굴며 사는 것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안빈낙도를 꿈꾸며 스스로 한직을 청하여 고향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스승을 곁에서 모시며 챙겨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속세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스승의 전별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뜻을 담고 있다.

예로부터 유가적 삶을 지향하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낳아주고 키워주는 부모님의 은혜와,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을 살리는 임금의 은혜, 그리고 교

32) 是年 知止堂宋公特授左參贊 謝恩乞遷 蒙允 四月 南歸 傾朝餞別於東大門外漢江上, 『면양집』 5권, 272쪽.

33) 최재남, 「송흙 귀향의 반향과 송순 문학의 기반」, 『한국문학논총』 43집, 한국문화회, 2007, 8쪽.

34) 知止堂諡孝憲 甲申拜全州府尹 移光州. 『면양집』 1권, 185쪽,

육하고 훈도하여 이끌어주는 스승의 은혜를 높이 기리던 문화를 지켜왔다. 송순은 유학자로서 이러한 정서가 깊이 그의 사상에 깃들여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이 시는 스승에 대한 송순의 깊은 정과 존경심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畫閣玲瓏俯碧寒	영롱한 누각 푸른 물 굽어보는데
每憐淨澄獨憑欄	언제나 맑고 좋아 홀로 난간에 기대다
涵秋洗鏡開平浦	평평한 포구는 가을을 담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噴雪晴雷下急灘	급히 흐르는 여울엔 눈발이 천둥처럼 휘날리네
皎潔此心曾合契	이 마음 해맑아 서로 들어맞았으니
淵源一派也宜觀	한 가닥 염원도 마땅히 볼 수 있으리라
百年交養知如許	백 년 동안 서로 길러줌을 알았으니
冰玉崢嶸照肺肝	끗끗한 지조가 폐와 간을 비추겠네

〈次宋四宰觀水亭韻〉 35)

위의 시는 송흙이 계정 홍문관응교로 있을 때 지은「관수정」이라는 시를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송순은 스승인 송흙의 청렴한 일생을 한 폭의 그림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화 등 정변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늘 변함없이 흐르는 유유한 물줄기처럼 편안해지기를 고대하는 송흙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백수를 누리는 동안 늘 옥처럼 맑은 마음으로 수양을 하였으니 그 폐와 간을 환히 꿰뚫어보듯 맑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그 성향이 나타난다. 어려서부터 스승의 인품을 보고 배워왔던 송순은 특별한 정으로 다른 그 누구보다 송흙을 사모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스승인 송흙이 제자인 송순과 이별하며 지은 시이다.

君有尊師我族親 그대는 위대한 스승, 나에겐 종친이니

35) 『면양집』 1권, 74쪽.

好將詩酒樂餘春 시 읊고 술 마시며 남은 봄 즐겨보세
 心談此日相虛受 마음 속 얘기 오늘에 서로 비워
 晚節猶期德業新 말년에 덕업을 새롭게 기약하세
 〈次宋掌令純別章〉³⁶⁾

일찍이 혼란한 정치현실이 싫어 외직을 고집하며 살았던 송흠은 모처럼 제자와 마주하며 터놓고 마음에 있는 말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은 시를 좋아하여 창작을 즐겼으니 마주하는 즐거운 자리와 회포를 자연스레 시를 통해 풀었던 것이다. 마음 속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허물없는 사이로 서로를 잘 알았을 때 가능한 일이니 사제지간의 돈독한 정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언젠가 지금의 간사한 무리들이 패망을 하였을 때 다시 덕업을 새롭게 쌓을 것을 다짐하는 표현이 송순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송순의 교유시 중에서 사제지간의 정의를 담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송순이 사제지간 정의를 표현한 시들은 대부분 스승에 대한 고마움, 존경심,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특히 〈奉和訥齋先生贈僧韻〉에서는 현실과 정치생활의 경계를 넘나들며 갈등하는 스승의 외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스승인 놀재 박상이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이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입장으로 노래했다. 봄과 소나무(松檜), 가을과 난초(菫蘭)를 서로 대비시켜 묘사해보였다. 그리고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사림의 영수 박상을 추앙하는 절묘한 비유에서 스승을 향한 송순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스승인 송흠이 안빈낙도를 꿈꾸며 스스로 한직을 청하여 고향 쪽으로 가게 되었으나 곁에서 모시며 챙겨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했다. 그의 스승에 대한 정의는 혼란한 정치현실이 싫어 외직을 고집하며 살았던 스승 송흠과 마주하며 터놓고 마음에 있는 말을 나누었던 작품이다. 사제지간이 서로 시를 좋아하여 창작을 즐겼으니 마음 속 회포를 자

36) 『면양집』 4권, 276쪽.

연스레 시를 통해 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허물없는 사이로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순은 교육하고 훈도하여 이끌어준 스승들의 은혜를 높이 기리어 깊은 정과 존경심을 시로 읊었다.

일찍이 송순의 스승이었던 박상은 호남 문학의 사종으로써 절의가로 추앙받았던 사람과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리고 송흙은 소문난 청백리이다. 송순은 절의가이며 청백리인 두 스승의 명맥을 이어 호남 시단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학자로서 송순의 인간적 면모와 문학적 명맥은 호남문학의 줄기에 열매를 맺게 하였다.

3. 동료지간의 신의

송순은 동료지간의 친목 관계가 깊고도 넓었다. 그와 교류했던 인물로는 신광한, 성수침, 나세찬, 이황, 김인후, 임형수, 박순, 기대승, 고정명, 정철, 임제, 유성춘, 윤구 등 모두 당시에 학문과 덕행이 높은 분들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송순이 오랜 관직생활이나 면앙정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교류했던 인물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110여 명에 달한다. 그의 인품이 온유돈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돈독히 쌓아온 정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從風飄葉轉西來	나뭇잎 밤바람에 나부끼어 서쪽을 향할 때
偶爾江頭一醉同	그대와 나 강 머리에서 같이 취했다네
今日相逢明又別	오늘은 만났지만 내일은 또 헤어질테니
不知岐路幾時窮	갈림길이 언제나 끝날지 알 수 없구나

野風吹月弄沙光	들바람이 달을 불어 모래 빛 희롱하는데
山色江聲與作場	산 빛과 강물소리 더불어 어울린 마당
欲畫無工詩亦拙	그리자니 솜씨 없고 시 마저도 불품없는데
只將杯酒慰顛狂	술을 마시면 정신없는 버릇 위로 한다네

〈夜與天章同宿梅鶴亭二首〉 37)

이 시는 매학정에서 나재 유성춘과 함께 잠을 지새우며 읊은 시이다. 명필가로 이름을 날린 황기로의 매학정에서 날이 밝으면 다시 헤어져야함을 애석해하며 시를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들바람이 달을 불어 모래의 빛은 밝고 물소리가 어우러져 풍류에 젖고 말았으니 노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술을 실컷 마시며 서로의 애환을 달래며 밤을 지새웠던 정경을 묘사했다. 송순이 32세 때는 유성춘이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다. 송순은 벗의 빠른 쾌차를 빌며 시를 지어 보내기도 했다. 송순의 나이 60세 때에는 선산도호부사에 제수되었다.

미암 유희춘의 형인 유성춘(1495~1523)은 기묘명현으로 16세기에 호남삼걸로 일컬어졌던 인물이다. 광양에서 잠시 머물며 신재 최산두와 함께 한훤당 김굉필이 순천에 유배와 있을 때 학문수학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신병으로 인하여 28세에 요절하였으며 그가 남긴 작품은 부 1편만이 전한다. 유성춘과 최산두는 집안끼리 혼인으로 인하여 일찍이 인연이 있었으며 같은 스승을 모셨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관계였을 것이다. 놀재 박상이 송순의 스승이자 기묘명현³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호남삼걸도 모두 기묘명현이었다. 따라서 사림과의 계열인 송순이 이들과 유대 관계를 갖고 지냈던 것은 우연히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衣冠久未謁王宮	의관을 갖추고도 오래도록 왕을 뵈지 못하니
却抱沈痾費藥筒	갑자기 병마를 앓아 복약하느라 세월만 허비했네
身外功名催客老	몸 밖의 공명은 늙은 나그네를 재촉하는데
山前草木已秋風	산 앞의 초목 보니 가을이 깊었구나
棲遲便可尋田舍	고향집 찾아가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

37) 『면양집』 3권, 216쪽.

38) 기묘명현은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辛苦何須滯洛中 어찌하여 고생스럽게 서울에 체류하는가
 待得調平心氣健 마음도 편안하고 기운도 건강하길 기다리네
 年時應不至衰翁 나이가 응당 쇠용에 이르지 않았는가
 〈次柳司成(成春)韻〉 39)

이 시에서 송순은 친구인 유성춘의 병을 걱정하며 서울에서 오래 체류하지 말고 빨리 쾌차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응당 고향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지만, 병을 고치기 위하여 복약하느라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우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늘 세상의 일들에 찌들려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른 채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회한이 담겨있다. 그리고 쇠용에 이르기도 전에 병으로 고생하게 된 지우를 걱정하고 벗으로서 의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서로 간의 정이 매우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유성춘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호남3걸 중 윤구와 유성춘은 송순과 두 살 터울로 비슷한 동년배였으며 관직생활도 같이 하게 되어 친분이 두터웠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사림과 계열이었으므로 서로 간에 의리를 갖고 지냈을 것이다. 유성춘은 본관이 선산이며, 1514년 과거에 합격하여 이조정랑의 벼슬까지 지냈다. 유성춘은 윤구와 최산두 등과 함께 호남3걸로 일컬어졌던 만큼 윤구와는 같은 해의 출신이며 정계에 출사도 함께 했던 절친한 벗이었다. 혈맥으로도 호남사림의 큰 맥을 잇고 있는 금남 최부가 바로 유성춘의 외조부이며 윤구의 오촌 이모부이다. 이렇듯 이들은 모두 인맥을 잇고 있으며,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野老有佳期 들녘 늙은이 아름다운 시기를 맞아
 移花開竹扉 꽃을 옮겨 심고 사립문을 열어놓았네
 挽衫要客醉 옷자락을 붙들고 취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
 深淺兩心知 두 사람 우정의 깊고 얇음을 알겠네

39) 『면양집』 1권, 185쪽.

〈月山李上舍移菊請酌〉 40)

이 시는 월산에 사는 진사 이운온이 꽃을 옮겨 심은 후 술을 권하며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작품이다. 봄이 오니 꽃을 옮겨 심고 사립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겠다는 다짐이 드러난다. 술을 마시고 난 뒤 돌아가려는 친구의 옷자락을 잡으며 함께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두 사람이 격이 없는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마지막 시구의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월산마을은 ‘북쪽의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월산은 현재 경남 창원시 북면 월백리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이 시는 송순의 나이 48세 때부터 50세까지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 창작된 작품인 듯하다. 시골 마을에 살면서 소일거리로 꽃이나 채소 등을 경작하다보면 서쪽에 해가 누엣누엣 넘어갈 때쯤 한 잔의 술을 생각하게 된다. 고단함과 허전함을 채우러 마시는 술을 벗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는가!

春思悠悠嶺之南	봄을 그리는 생각 영남으로 달려가니
時物已多淸江曲	맑은 강 굽이굽이에 온갖 풍경 새로워라
遊子忽發長安道	나그네(遊子) 갑자기 서울 길을 나설 때
東風千里歸期促	봄바람 천리나 되는 돌아올 길 재촉하네
名聲不虧氣力健	명성도 이지러지지 않고 기력도 건강하니
白髮堂前歡始足	흰 머리 어버이께서도 기뻐하실 것일세
車馬填門鬧如市	수레와 말이 문 앞에 가득 저자같이 시끄러운 건
半年別離傾諸族	친척들과 반년 동안이나 이별했기 때문이지
園中草木帶欣意	정원에 초목들도 기꺼이 맞아 주는 곳
靑白參看梅與竹	푸른 매화와 대나무도 안아볼게
旋茲北轅自遲回	수레를 북으로부터 드디어 돌아오니
事非一家多反復	한 집안 일이 아니어서 반복이 많구나

40) 『면양집』 1권, 183쪽.

我亦湖南一病夫 나 역시 호남에 한 병부(病夫)로서
 無等山陰是舊谷 무등산 북쪽 옛 골짜기에서 살았지
 撤床縫囊決歸謀 상을 걷고 쌀 주머니를 꿰매어 돌아가고자
 山水邊頭安草屋 산수의 변두리에 초가집을 지었다네
 明朝漢濟分舟去 내일 아침 한강을 건널 때 배를 나누워 타고 가니
 二南別恨應相屬 호남과 영남 서로의 이별이 아쉬워라
 〈送金正言希說觀省嶺南〉 41)

이 시는 영남에 계신 아버지를 살피러 가는 정언 김희열을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따뜻한 고향의 봄을 그리워하며 늘 부모님을 살피러 떠나는 친구와 현실에 염증을 느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위로한 시이다. 송순의 시에서 봄은 고향을 동반하는 시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봄이면 우선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한다. 매화가 눈밭을 뚫고 피어나며 산언덕엔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앞을 다투며 피어난다. 또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풀밭으로 뛰어오르고 냉이와 씀바귀, 쑥 잎 등 봄나물 틈으로 아지랑이가 아롱거린다. 송순에게 봄은 그런 곳이다.

송순은 1519년 10월에 문과에 올라 다음 해 봄에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면신을 마치지 못하고 예문관 참시사재에 천거되었는데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해 겨울에 검열에 제수되어 홍문록에 참입하였으며 또 사가독서⁴²⁾에 선발되었다. 1521년 여름 6개월 동안 동호독서당⁴³⁾에서 분반하면서 매일 초하루마다 읽은 글과 지은 글을 모두 써서 왕에게 올렸다.⁴⁴⁾ 이전에 겪었던 기묘사화 때 많은 선비들이 죽고 귀양을 갔기 때문

41) 『면양집』 1권, 184쪽.

42) 사가독서란 세종 8년(1426)에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고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했던 제도이다. 세조 때 이 제도를 없앴다가 성종 24년(1493)에 다시 복구하였다. 그 후 병자호란을 당하여 이 제도를 아주 없애게 되었다.

43) 중종이 인재양성과 문풍 진작을 위해서 독서 장려책을 적극 권장하였다. 1507년에 독서당제도를 부활하고 지금의 동대문구 송인동에 있던 정업원(淨業院)을 독서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업원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아니라는 주청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종은 1517년에 두모포(豆毛浦) 정자를 고쳐 독서당을 설치하고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라 이름 지었다.

44) 己卯十月 登科 庚辰春 以承文院權知副正字免新未畢 入薦藝文館 參試史才 退歸鄉

에 그들을 사모하는 글을 올렸는데 승지 최서절이 이 시문을 문제 삼아 사건을 만들려 했으나 동료들의 만류가 있었기에 재화를 면하게 되었다.⁴⁵⁾ 이 때 벼슬을 그만두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김희열에게 이 시를 지어준 것이다.

친구는 하물며 명성이 높아져 고향을 찾아가니 자식을 맞는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는가! 오래도록 헤어졌던 친척들이 봄벼 집 앞은 온통 수레 소리가 저자를 이룰 것을 표현했다. 송순 역시 일찍 시골에서 자랐기에 수구초심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 밤이 새면 한강에 뱃머리를 서로 달리하여 헤어질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시를 읊었다. 누구나 친구란 늘 봐도 또 만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중앙정계를 멀리하여 외직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마냥 서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周家基業晚移東	주나라 왕업이 나중에 동방으로 옮겨와 ⁴⁶⁾
千載寥寥王澤窮	천년토록 적막하여 왕의 은택 끊어졌다.
萬古餘民猶秉性	만고의 남은 백성 그래도 양심이 있어
當時列邑憶分封 ⁴⁷⁾	당시의 여러 읍들 분봉한 일 생각한다.
臨官只恐仁無給	벼슬아치는 다만 어짊의 부족함을 염려할 것이요.
承敎何嫌化不同	가르침을 이어 어찌 치화가 다름을 혐의하라
一向吾誠謀出治	늘 나의 정성으로 다스림을 꾀할지니
莫憑刑法迫魚蟲	형법을 가지고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지 마라

〈送同年李應物赴密陽〉⁴⁸⁾

家 其冬 除檢閱 參入弘文錄 又選賜暇讀書 辛巳春夏六朔 分番於東湖讀書堂 每朔所讀製 皆令書啓, 『면앙집』 1권, 184쪽.

45) 先是己卯秋 土類斥死者多 而先生有暮思詩一絕 至是朔啓 并以錄上 承旨崔世節 欲因之中傷 同僚有止之者 乃免, 『면앙집』 5권, 부록, 〈년보〉.

46) 주나라 문왕이 나라를 세울 때에 인심을 얻고 나서 무력을 가했다. 조선조 탄생과 유사한 이야기이다. 이 시구는 조선을 옹호하고 명분을 부여해준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47) 천자가 땅을 나누어 제후를 정하는 일을 말함.

48) 『면앙집』 1권, 185쪽, 초하루 날 임금에게 올리는 계문 가을에 검열이 되었는데 왕께서 대궐 안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시강원에 감괄을 하사하시고 겸하여 삼제(三題)를 내려 즉시 예문관으로 지어서 내라고 명하셨다. 내가 다행히 으뜸이 되어 상을 받았는데 별조궁 하나였다. 가군(家君)에게 드렸으니 왕의 하사(下賜)를 영화

이 시는 같은 나이이며 친구인 이응물이 밀양으로 부임해 가는 길을 전송하며 지은 작품이다. 시의 전반부에 주왕가를 주제로 삼은 것이 공자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주공이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주공을 존경했던 까닭은 도덕 정치로 여러 세기에 걸쳐 왕권을 통치하였던 점이다. 공자의 시대에는 사실상 도덕성이 무너져가던 시대였다. 공자는 이를 막기 위해 인권이 존중되어야하고 도덕이 근본이 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가정과 학교, 향리, 제후국 등을 활성화시키고 인간의 운택한 삶은 오직 교육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응물은 사마시의 동년배로 벼슬이 병조정랑이요, 1517년 정축 10월의 별시에 을과 1등으로 합격했다. 경상남도 삼가에 사는 이증주의 아들이다.⁴⁹⁾ 이때 송순은 3등으로 합격했었다.

송순은 시대적으로 암울한 때에 백성을 ‘교’와 ‘덕’으로 교화하는 정치로서 다스려야함을 주나라에 빗대어 표현했다. ‘교’와 ‘치화’가 다르지 않으니 늘 정성으로 백성을 살펴야 할 것을 시로서 서로의 다짐을 표현한 듯하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려는 입장이라기보다 그들을 당장 벌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적 한계점에서 척신들이 패망할 것을 믿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언젠가 도덕정치로 치화하여 평정을 찾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이별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輕蹄沿澗踏晴沙	가벼운 걸음으로 시냇물 따라 백사장을 거닐다
好趁春光入太阿	봄날 따른 것이 좋아 언덕으로 들어섰다
白飯青蔬牽客袂	소박한 밥상 차려 나그네의 소매를 붙들더니
山村知是故人家	산촌이 알고보니 옛 친구의 집이었네

〈行到太仁古縣贈金同年原明〉⁵⁰⁾

롭게 여겨서이다. 이상은 독서당에서 삭계가 되었다.

49) 司馬同年 官兵曹正郎 丁丑十月別試中乙科一人 居慶尙南道三嘉增壽子, 『면양집』 1권, 185쪽.

50) 『면양집』 1권, 187쪽.

위의 시는 말을 타고 먼 길을 따뜻한 봄 날씨의 햇빛을 받으며 태인 땅을 찾았더니 벗이 소박한 밥상을 차려 놓고 옷자락을 붙잡아 머물기를 청했다. 정겨운 분위기를 맞아 옛 정취의 향기를 느끼며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다.

동년인 김원명의 집 앞 정자에 올라 주변 경관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옛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냥 일어서려하나 애써 붙잡아 한 끼의 식사라도 대접해 보내려하는 친구지간의 깊은 정을 담은 시이다. 깊은 산촌에서 담박한 밥상을 차려 놓고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감탄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不見此翁久	이 늙은이 못 본 지가 오래 되었는데
稚楊高蔽川	낮았던 버드나무 높아져 강을 가린다
形骸匹夫後	몸매는 필부의 뒤에 설만하지만
膽氣萬人前	담력은 만인의 앞에 서겠도다
世事拋慵裏	세상일은 게으름 생겨 던져버리고
山風引醉邊	산바람은 술 취할 때 불어온다
吟詩還費力	시를 읊는 것도 힘이 들어서
默默臥看天	묵묵히 드러누워 하늘만 쳐다본다

〈復次金原明閑亭韻〉 51)

이 작품은 김원명의 한정 운을 차작한 二首 중 한 작품이다. 이 시는 김원명의 누각에 판각되어 있어 송순과의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버드나무 가지가 자라서 강을 가릴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말하며 시상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몸이 늙어 보잘 것 없는 필부처럼 모습이 변하였지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다. 세상의 온갖 시름은 게으름을 핑계로 벗어 던지고 산바람에 술에 취한 기분을 날려 보낸다. 이제 시를 짓는 것조차도 여의치 않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되뇌어보는 광경이 연상된다.

51) 『면양집』 2권, 206쪽.

박학다식한 늙은이와 하찮은 필부가 대구를 이루어 살아있다는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련에서 묵묵히 누워 하늘만 본다는 것은 세월 속에서 지쳐가는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세속에 이끌려 다니다보니 오랫동안 친구를 보지 못했지만 늙어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찾아가도 한결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곁을 내주는 친구지간의 정을 엿볼 수 있다.

김약회(1506~1544)는 중종 때 을사사화로 인해 세상이 혼란해지자 고향으로 내려와 정자를 건축하였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학문에 임했던 인물이다. 김약회는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정자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호를 한정이라 정했다. 중종 8년(1513)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당시에 명류였던 퇴계 이황(1501~1570), 하서 김인후(1510~1560), 일재 이항(1499~1576) 등과 깊이 교류하기도 했다. 이 누정(閑亭)은 조선시대 호남 유림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장소이자 문학과 학문의 사교 장소로 알려져 있다.

殘氓久不見興師	힘없는 백성들 오랫동안 전쟁이 없어
聲息從來靜四陲	사방 변경이 조용하다고만 들어왔다
外擊闖邊縣竊舸	왜구가 변경에 침범하여 현의 배를 도적질해 가므로
將軍罷睡整兵旗	장군도 잠깨어 병사 깃발 가지런히 하네
千年白日無盈昃	천년 동안 밝은 해는 차고 기움이 없는데
一海妖氛漫盛衰	일해의 요망한 기운이 부질없이 성하다가 쇠하다 한다
勝敗不須論事後	승패를 사후에 논하려 말고
死生先向此民知	사생을 먼저 백성에게 알려주라

〈林仲虛於臨淄鎮作詩以寄卽步韻以答 二首〉 52)

이 시는 임중허가 임치진에서 시를 지어 보내오자 화답하여 지은 것이다.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백성을 걱정하여 벗에게 안위를 베풀어줄 것을 부탁하는 시이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

52) 『면양집』 1권, 187쪽.

이 간신배들의 싸움에 힘든 생활을 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다. 시의 내용 중 ‘일월영측(日月盈昃)’이라는 고사성어를 비유하였다. 해는 중천에 이르면 기울어지고 달이 차면 이지러진다는 말이다. 송순은 하늘에 뜬 해가 오래도록 영측이 없었는데, 한 나라의 요망한 기운이 비었다 찾다 하니 백성의 사생을 염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못별들은 백성을 이르며 바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힘쓰는 나쁜 관리들을 지칭한 것이다.

송순은 사화로 인하여 스승 놀재를 비롯한 주변의 지인들이 참화를 겪었으므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임오년(1522년) 여름에 전라도 관찰사 신상이 국전산관으로써 많은 유생을 모이게 하여 시험을 치렀다. 송순은 시관으로 사람을 가리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영광군 불갑산 불갑사에 가서 현감 나안, 광주교수 형사보와 함께 시험을 마쳤다. 이때에 군수 입증허가 왜변이 있어서 임치진에 있으면서 시를 지어 보내오자 송순이 즉시 그 운을 따라 시를 지어서 답한 것이다. 입증허는 문과에 올라 한림부정으로 군수직에 이르렀으니 그는 바로 금호 임형수의 숙부요, 낙촌 신광한의 처남이다.⁵³⁾

宋君曾折二書邀	송군이 일찍이 두 번이나 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三嶺雖高路不遙	삼령이 높다지만 멀지 않은 길이라
日昃門前人不到	해가 기울는데 문전에 사람은 오지 않고
雨過山後水還饒	비가 그친 산 뒤에 물은 다시 많다
馬臨南澗應回步	말이 남쪽 물가에 이르러 발길을 돌렸나
思逐西風漫轉飄	생각은 서쪽 바람을 따라 부질없이 흐른다
數夕佳期知己左	며칠 밤의 아름다운 기약도 아마 틀렸나보다
秋深他日倘相招	가을 깊은 뒷날 혹시 불러 주려나

〈龍泉寺次仁甫韻〉⁵⁴⁾

53) 壬午夏 申監司 錦 謂散官爲都會儒生試官 載在法典 以余差送于靈光佛甲寺 與縣監 羅安世 光州教授官邢士寶同考 時郡守林仲虛 咳 以有倭變 往臨淄鎮 作詩以寄 卽步 韻以答 二首 林公文科翰林副正 官至郡守 卽錦湖亭秀叔父 駱村申光漢婦兄弟也 登 科錄及己卯錄 有邢士保 是卽邢士寶. 『면양집』 1권, 187쪽.

이 시는 정만종과 주고받았던 작품 2수 중 하나이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음에도 늘 마음만 가까이 가있을 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가 저물어도 기다리는 벗이 오지 않으니 또다시 그리움에 쌓이게 됨을 노래한 시이다. 여기에서 서풍(西風)이 그리움과 회한을 나타내는 시어로 쓰였다. 며칠 동안이나 친구가 올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오지 않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교차하며 나타난다.

한편 이 시에 드러난 만남은 송순이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갈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정치에 대한 미련이요, 다시 정계에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석된다.

인보는 정만종의 字이다. 정만종은 송순보다 3년 앞선 중종11년(1516)에 과거에 3등으로 급제한 인물이다. 송순의 나이 21세 때에 함께 놀재의 문하에 들어가 동문수학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경상, 충청, 황해, 경기, 함경 등의 감사를 지냈으며 중종34년(1539)에는 진위사로 연경을 다녀오기도 했다.⁵⁵⁾

殘生與世不相如	남은 인생 세상과는 맞지 않으니
捨此溪山孰肯余	산과 시내 말고는 누가 나를 반기겠는가
風月無情惟我取	풍월은 무정한데 오직 내가 취하고
功名多事是君餘	공명은 일이 많은 것 그대의 여사рода
筇移一逕人乘興	지팡이 한 길로 드니 사람은 흥치가 나고
秋入千林木欲疏	가을이 천림에 드니 나무가 성글어진다
幽趣向來知己孰	그윽한 취미가 무르익음을 알았노니
百年懷抱得弘攄	백년의 회포를 크게 한번 털어봐보자
〈次仁甫遣興韻〉 ⁵⁶⁾	

54) 『면양집』 1권, 187쪽.

55)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116쪽.

56) 『면양집』 1권, 187쪽.

위의 시는 한림 정만중, 윤순과 함께 용천사에 들어가 놀다가 송세형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정만중이 시를 짓고 다시 송순이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⁵⁷⁾ 이 시에는 송순 자신의 품은 뜻이 세상과 맞지 않으니 계산으로 들어가 풍월을 함께 즐기며 살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작품이다. 속세의 여러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싶으니 나라의 일은 정치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곧 자연의 무한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유한을 위로 받으며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여러 사화 등 시류에 가담하지 않고 퇴휴하게 된 송순으로서는 자연히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너무 개의치 말자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계산의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자신이 쉴 공간이며 유유자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坡山之水	파산의 물이여!
宜浴宜沐	몸 씻고 머리 감을 만하다
坡翁之心	파옹의 마음은
如洗如濯	세탁을 한 듯하다
漁樵無伴	어초(漁樵) ⁵⁸⁾ 에 벗이 없음을
曷云其憂	어찌 근심 하리오
溪雲山鹿	시내의 구름 산 사슴이
盡是同遊	모두 함께 노니는 것을

〈題成處士聽松堂四言〉⁵⁹⁾

성수침의 「坡山」⁶⁰⁾이라는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548년에 송순은 개성유수가 되었는데 이미 부임하여서는 밖에 나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쉬는 날이면 늘 지역 내의 명승지를 찾아다녔다.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

57) 『면양집』 1권, 187쪽, 七月 與翰林鄭仁甫 萬鍾 尹上舍明允 洵 同入龍泉寺 待宋上舍獻叔 世珩 不至 次仁甫韻.

58) 어초는 물고기를 잡는 일과 뿔나무를 구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른다.

59) 『면양정』 3권, 232쪽.

60) 坡山之下 可以休沐 古澗清泠 我纓斯濯 飲之食之 無喜無憂 奧乎茲山 孰從我遊, 성수침, 『청송집』 1권, 한국문집총간 26, 155쪽,

은 성수침, 주진제 등이다. 이들과 함께 서로 뜻이 맞아 회포를 풀었다. 파산의 물이 맑아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니 마치 마음을 씻어낸 듯 개운함을 표현했다. 고기를 잡고 뽕나무를 구하는데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만큼 시내의 구름과 산에 뛰어노는 사슴이 벗이 되어주고 있다. 파산의 정취가 그만큼 풍요로우며 맑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동시에 속세를 떠나 좋아하는 벗들과의 유람을 통하여 얻는 즐거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수침의 『청송집』에 실린 「坡山」이라는 시는 무려 23명이 차운하였다. 위의 시는 송순이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청송의 시는 마지막 구절에 ‘奧乎茲山 孰從我遊’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순은 ‘溪雲山鹿 盡是同遊’라고 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인위적인 자연을 싫어한다.⁶¹⁾ 그것은 처음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과 갈등하며 조화로움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연을 매개로 하여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성수침의 자는 중옥(仲玉)이며 호는 청송(聽松)이다. 그는 기묘사화로 인하여 세상을 등지고 파산에 은거하여 살았다. 그의 아들이 바로 우계이다. 그는 글씨를 잘 썼으며 면양정의 정액(亭額)과 효사당의 당액(堂額)은 모두 성수침이 쓴 것이다.⁶²⁾ 둘의 우정은 시를 통해 이어졌다.

江樓終日對空山	강위의 누정은 종일 빈산을 마주하니
惆悵東流去不還	슬프다 동으로 흘러간 물이 돌아오지 않는다
釣石苔深魚已散	고기 낚던 돌엔 이끼가 끼고 고기들이 흩어지니
林塘惟見舊雲閑	다만 연못에 옛 구름만 한가롭게 떠있네

〈次亡友安順之(處順)韻〉⁶³⁾

위의 시는 죽은 친구인 안순지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강가의 누정에 올라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류거(東流去)는 친구를

61) 최한선, 위의 논문, 113쪽.

62)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2쪽.

63) 『면양집』 2권, 206쪽.

나타내는 말로 이미 죽어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피력했다. 친구와 함께 고기를 낚던 돌에는 이끼가 끼고 고기들은 여기저기 노닌다. 다시는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없으니 다만 한가롭게 떠있는 구름만이 그 때를 떠올려 주고 있다. 무상한 세상의 변화를 읊으면서도 친구와의 우정과 자연의 조화가 어우러져 시의 맛을 돋구어주고 있다.

안순지(1493~1534)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사림파에 속했던 인물이다. 그는 인정이 많아 주변 지인들과 많은 교유를 하였다. 빈산을 종일토록 바라보건만 한번 흘러간 물이 되돌아오지 않듯이 친구를 다시 볼 수 없을 뿐이다. 연못에 뜬 구름이 옛 친구의 얼굴인양 망연히 바라다볼 뿐이다.

송순은 안순지와 더불어 신재 최산두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 화순 동북으로 귀양 간 신재가 부모를 걱정하자 안순지는 대신 곡식 등 물리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렇듯 송순의 주변에는 많은 동료들이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어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 이는 혼잡한 시류로 말미암아 잦은 출사와 유배, 과직과 복직 등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의 긴 생을 영위하는 동안 송순은 빼어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學漢英才謂子高
三朝上國莫言勞
一時用舍知無恤
百歲行藏順所遭
遼塞他時應恨別
都門此日且含醪
遊觀自可寬懷抱
幽冀詩情料更豪

중국말 배운 영재 당신을 높게 평가해
세 번이나 상국에 조회했으나 노고를 말하지 않았다
일시의 용사는 상관을 하지 않고
백세의 행장은 닦친 대로 수용할 것이라
요동 변경 뒷날에 작별을 슬퍼하리니
도성의 문에서 오늘의 술을 들고 가게나
구경하면 자연히 회포가 넓어질 것이요
유주 기주에 시 지을 감도 많으리라

〈送尹司成(漑)赴京〉 64)

64) 『면양집』 1권, 193쪽.

이 시는 윤사성이 사신이 되어 북경으로 떠나게 되어 헤어지는 회포를 읊은 시이다. 윤사성은 중국말을 잘하여 북경을 자주 드나들었다. 헤어지고 만남에 대한 안타까움과 반가움을 술잔을 주고받는 것으로 묘사했다. 여행을 하면서 견문이 넓히고 많은 문물을 익혀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예로부터 유주와 기주는 말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땅이다. 행선지를 유주와 기주로 말하고 있으니 그 고장의 특별한 문화를 익혀올 것을 예견한 것이다. 따라서 북경의 생활에서 당연히 시적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심정을 말하고 있다.

논어의 술이편을 보면 공자가 안연에게 말했다. “세상이 나를 써주면 내 뜻을 펴고 나를 버리면 물러나 숨을 짓을 자네와 나만이 할 수 있다.”⁶⁵⁾ 이 시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일시적으로나마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백 년 동안의 역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떠나는 친구에게 술을 권하며 사람 사는 데에 있어 나아갈 때와 숨을 때가 있는 법이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세상이 굴곡지더라도 우정만은 변함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他日重逢未可期	뒀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 수 없으니
一樽論別自生悲	술 마시며 이별을 논하니 슬퍼진다
關河迢遞音書闊	관하는 아스랑게 멀어 편지도 드물 것이니
見月思君知幾時	달보고 그대 생각을 얼마나 하게 될까

相逢有喜別還愁	만나면 반갑고 이별하면 서운한데
奔走無時得少休	때 없이 분주하다가 조금 쉬게 되었다
珍重林泉拋亦久	좋은 임천을 버린 지가 오래이니
同歸何日結清遊	언제나 같이 돌아가 함께 놀아 보리요

〈雲住寺路口占贈別獻叔二首〉⁶⁶⁾

65) 子謂顏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唯我與爾有是夫. 『논어』, 「술이편」.

66) 『면양집』 2권, 206쪽.

송순은 같은 스승 아래에서 함께 학문을 깨우쳤던 동료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했다. 세상일에 분주하여 좋은 강호생활(林泉)을 즐길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언젠가는 벗어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파하는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시는 송세형과 이별하며 지어준 작품이다. 송세형은 송순과 함께 송흙에게 함께 나아가 학문했던 동료이다. 기약도 없는 이별과 만남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성을 말함으로써 인간만사 새옹지마와 같다는 깨달음을 옮겨 놓고 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인간의 사고에 내재되어 있다. 서로 다른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친구지간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다가 또 다시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一箇明珠久混塵	명주 하나가 진흙 속에 묻혔더니
人將瓦礫議精神	사람들 깨어진 기와 쪽으로 여겨 헛갈렸다
我今欲擲清江水	내가 맑은 강물에 이 구슬을 깨끗이 씻어
淨洗方知爾性眞	너의 그 참된 성품을 알고 싶다

〈次同年金光準韻〉 67)

이 시는 고향 친구인 김광준에게 지어준 시이다. 송순은 친구를 명주에 비유하며 진흙 속에 오래도록 묻혀 지내고 있으니 남들의 입에 공연히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불거리는 그 말들을 이제 맑은 강물에 깨끗이 씻어서 친구의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다.

김광준과는 친구사이인데 위훈에 대해 갑자기 송순에게 이야기하기를 “공은 조정에 병란이 평정된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하니 부질없이 대답하여 가로되 “모른다.”고 한다. 광준은 얼굴을 찌푸리며 “국가 공론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어찌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라고 하자 송순은 그와 더

67) 『면양집』 1권, 192쪽.

불어 다시 변명을 하지 않았다⁶⁸⁾고 한다. 고향 친구인 김광준과 정치적인 노선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송순은 친구의 진면모를 모르는 세속인들이 지껄이는 말들은 언제이고 강물에 씻기듯 지워지게 될 거라는 바람을 시에 담아 친구에게 전한 것이다.

肝膽元非楚越 간담은 원래 초월 같은 사이가 아니요
襟期只要詩書 회포는 다만 시서만을 필요하다네
南岳方看皓月 남악에 바야흐로 하얀 달 보이니
西江應閉寒廬 서강에는 아마도 초가집 문 닫았으리
〈留客六言〉 69)

위의 시는 손님을 만류하며 지은 것이다. 간담은 유종원의 고사에서 비롯된 간담상조를 들 수 있다. 이는 간과 쓸개를 서로에게 다 보여준다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말한다. 서강은 중국의 지장강을 이르며 중국 남부에서 가장 긴 강이다. 남악은 중국의 오악 중에 하나인 형산을 이른다. 인간 세상에서 헤어지고 만남을 남악과 서강에 비추어 표현하였다. 오악엔 하얀 달은 세월을 뜻하며 서강의 긴 강은 거리를 뜻한다. 벗을 보내기 싫어 만류하는 말이다. 떠나보내기 싫은 벗이요, 한번 떠나면 오래도록 만날 수 없는 벗을 안타까워하며 쓴 시이다.

송순이 동료지간에 읊었던 시들은 대부분 고향 친구이거나 동시대에 관직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정을 담고 있다. 속세를 떠나 좋아하는 벗들과의 유람을 통하여 얻는 즐거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려는 입장이라기보다 그들을 당장 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주고받은 시

68) 丁未二月 禪閣 金光準 故人而僞勳也 忽見公語曰 公知朝廷戡亂否 公慢應曰 不知也 光準勃然曰 國論已定 何謂不知 公不與更辨 磁亦故僚也 既錄勳 富貴赫然 公戲曰 公家美女 曾所未見 一何多也 磁面赤不敢對 公之諷糾 雖知舊不避如此, 『면양집』 5권, 부록, 〈企村先生宋公家狀〉.

69) 『면양집』 1권, 196쪽.

들도 있다. 언젠가 도덕정치로 치화하여 평정을 찾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이별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송순의 작품들 속에서 인간적인 진실성과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가끔은 일상의 평범함을 함축하고 있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시인의 세계관을 접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던 동료들과의 이별이나 유람을 하는 과정에서 창작한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연출한 송순 문학의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송순은 벼슬 직을 두루 거치며 장수했던 시인이다. 못 사람들이 그를 영화로운 일생을 보냈던 인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일찍 여의었으며 사화로 인하여 의를 중요시 하며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을 잃었다. 그는 늘 자신의 영화보다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챙기며 살았다. 때문에 그의 온후한 인간미는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온기가 작품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송순 한시에 드러난 교유 양상을 사제지간의 정의와 동료와의 신의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그간에 다루어진 송순 한시의 교유시에 대한 연구들은 부분적인 주제 연구에 한정되었거나 개략적인 열개를 다룬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필자는 송순 한시에 드러난 교유시의 양상과 정서를 총체적으로 살펴 주제별로 작품 분석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 면모를 파악하고 주제별 관점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사제지간의 정의에 대해서이다. 송순의 인간적 면모가 갖추어지게 된 근본으로 파악되는 사제지간의 정의는 두 갈래의 수학과정을 통하여 살폈다. 하나는 박상과 박우 형제에게 수학하며 절의가와 문학가로 명망이 높아지게 된 점이다. 송순은 16세기 호남 한시와 사림의 주종으로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아왔던 박상과 그의 아우 박우에게 사사를 받았기에 자신이 문학가로서 추앙을 받게 된 점을 스스로 인정했던 점이다. 그리고 청백리로 꼽히는 지지당 송흙과 송세림에게 직·간접적으로 수학하여 풍류시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작품을 통하여 스승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이나 스승들이 나이 먹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작품에 드러난다.

송순이 길러낸 제자로는 김인후, 고경명, 임형수, 기대승, 박순 임제 등이 있다. 정철은 송순이 유독 많이 아끼던 제자이다. 송순이 벼슬한 지 60년을 넘기게 되어 주변인들이 서둘러 회방연이 열렸다. 송순이 무척이나 아끼던 정철은 회방연에 참석하여 스승을 각별히 모시고 싶은 마음에 직접 남녀에 태워 잠자리로 모셨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모두 감동하여 부러워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통하여 송순은 누구나 부러워할 인맥을 갖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주변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동료와의 신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송순은 인품이 온유돈후하

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돈독한 정을 유지하며 지냈다는 것을 그의 작품과 함께 살필 수 있었다. 그와 친분이 있던 인물로는 신광한, 성수침, 나세찬, 이황, 김인후, 임형수, 박순, 기대승, 고경명, 정철, 임제, 유성춘, 윤구 등이며 이들은 모두 당시에 학문과 덕행이 높은 인물들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송순이 오랜 관직생활이나 면양정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교유했던 인물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110여 명에 달한다. 이는 그의 인품이 좋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돈독히 살았던 덕분이라고 여겨진다. 동료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해하며 조화로운 시작 활동을 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송순의 한시 속에 드러난 교유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은 이 밖에도 스님과 교분과 별시나 만시를 통하여도 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면앙집』, 『눌재집』, 『청송집』

『논어』, 『서경』,

김동욱, 「임난전후 가사연구」, 『진단학보』 25~27집 합병호, 진단학회, 1964.

박준규, 「송면앙정연구-그의 생명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25호, 국어문학회, 1985.

_____, 『호남 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년, 101쪽.

이종건, 『면앙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2, 17쪽.

_____,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2쪽.

임준성, 「면앙정삼십영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12, 471쪽.

주뢰, 「송순 한시의 표현적 특징과 주제 연구」, 가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최재남, 「송흙 귀향의 반향과 송순 문학의 기반」, 『한국문학논총』 43집, 한국문학회, 2007, 8쪽.

최한선, 「면앙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116쪽.

_____, 「면앙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113쪽.

Abstract>

The Pattern and Sentiment of Song Soon's Friendship Poems

Baek, Suk-ah

Research on Song Soon has been made so far from various perspectives. Song Soon's anthology Myeongangjip contains some 560 Sino-Korean poems. A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em give us a glimpse to his association relationships. Based on the outcome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iscussed the pattern of association observed in Song Soon's Sino-Korean poems. The discussion was particularly focused on his poems describing his affection i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his faith and friendship with colleagues.

Poems related to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one of two stories. One is that Song Soon won a reputation by the teachings of brothers Park Sang and Park Woo who were revered as the greatest men of fidelity and writers in those days. Saying that he owed his being a scholar to the two brothers, Song Soon never forgot his indebtedness to the brothers. The other is that Song Soon was acknowledged as a refined poet through direct and indirect teachings of Jijidang Song Heum (1559-1547) who was Song Soon's uncle and was famous as a man of integrity and of Song Se-rim (1479-?) in Taein, Jollabuk-do.

This study also examined Song Soon's faithfulness to his colleagues observed in his Sino-Korean poems. His works suggest that Song Soon had a gentle and affable personality, being faithful to many people and

exchanging affection with them. It is notable that he had harmonious poem writing activities through exchanging poems with his colleagues and sharing his heart with them. Song Soon's Sino-Korean poems exhibiting his association pattern need to be studied also based on his poems on friendship with Buddhist monks, farewell poems, and requiems.

Key words : Song Soon's Sino-Korean poems, friendship poems, justice and faith, gentleness and affability, harmonious creation activity

투고일 : 2015년 1월 15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